

보건교사의 보수교육 요구도에 미치는 영향

유영선¹ · 공경란¹

¹울산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Influencing the Needs for Continuing Education of School Health Teachers

Young Seun, Ryu¹ · Kyoung Ran, Kong¹

¹*Department of Nursing, Ulsan College, Ulsan, Republic of Korea, Assistant Professor*

한국간호연구학회지 『별책』 제7권 제4호 2023년 12월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Vol. 7, No. 4, December. 2023

보건교사의 보수교육 요구도에 미치는 영향

유영선¹ · 공경란¹

¹울산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Influencing the Needs for Continuing Education of School Health Teachers

Young Seun, Ryu¹ · Kyoung Ran, Kong¹

¹Department of Nursing, Ulsan College, Ulsan, Republic of Korea, Assistant Professor

Abstract

Purpose : This study endeavors to investigat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needs for continuing education of school health teachers. **Methods :** Data were collected through questionnaires distribute to 150 school health teachers working at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in U-city from May 1 to June 30, 2020, and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22.0 program. **Results :** The difficulty of job performance averaged 4.06 on a scale of 5, with the perception of continuing education was 10.04 out of 15, satisfaction with continuing education at 3.83 out of 5, and needs for continuing education was 4.46 out of 5. Notably, significant variations in the difficulty of job performance were observed based on education level($p = .014$), education career($p < .001$), school level($p = .029$), and the number of classrooms($p = .001$). Additionally, the perception of continuing education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depending on age($p = .001$) and, education career($p < .001$). The influential variables impacting the needs for continuing education were identified satisfaction, highlighting the pivotal role of satisfaction with continuing education, which accounted for 22.8% of the variance. **Conclusion :** Therefore, and effective continuing education program will be necessary to boostenhance the needs for continuing education by enhancing satisfaction among school health teachers with continuing education programs.

Key words : School health, Continuing education, Job performance, Job satisfaction, Needs

I. 서론

보건교사는 간호사면허를 자격조건으로 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 등을 통해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건강문제 해결과 개선을 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역할을 담당한다[1-3]. 2011년 4월 의료법 개정안이 공포되고 2012년 4월 29일부터 의료인 보수교육 면허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의료법 제 24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 17조에 의거하여 의료인은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고, 보수교육을 근거로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면허신고제를 도입하였다. 이로 인해 보건복지부에서는 보수교육 이수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4], 보건교사는 의료인으로서 면허유지를 위해 보수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대한간호협회는 보수교육 운영에 대한 권한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위임받아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여 실시하거나, 간호교육 기관, 의료기관 및 각 시·도 산하단체에서 개발한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심사하여 보수교육 실시기관으로 인증한 후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중앙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5].

보수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발전 방안으로 간호사의 보수교육은 전문직의 질 향상과 간호대상자의 안녕을 도모하기 위해 평생에 걸쳐서 진행되어야 하고, 임상영역별, 취업기관유형별 등을 감안하여 개별화하여 적용하도록 권고되고 있다[6]. 보건교사의 경우 보건교사의 직무연수를 의료인 보수교육으로 대체 인정하고 있어, 보건교사는 특정 교원단체가 아닌 교육청이나 교원 연수원 등에서 직무연수를 통해 보수교육을 대체하고 있기도 하다[7]. 최근 학생들의 비만, 미디어중독, 성폭력, 흡연 및 음주, 약물남용, 자살 등의 다양한 건강문제 증가로,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교사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8-11].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학교의 재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학생들의 보건실 이용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12],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의학적 응급상황

또한 자주 발생하고 있다[13,14]. 학생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알레르기, 천식, 당뇨, 선천성 기형과 만성적인 건강문제[15,16] 뿐 아니라 다양한 계통별 건강문제로 보건실을 방문하고 있는 실정이다[12].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건교사는 학생들의 건강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을 갖추는 것이 필수라고 할 수 있다. 보건교사는 학생들이 위급한 건강문제에 부딪혔을 때 응급처치를 위한 전문기술을 습득하고, 건강사정을 통한 문제를 발견하고 간호중재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보수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된다[12,17]. 실제 보건교사들은 응급환자, 요보호자 간호 등의 건강관리, 투약 및 의료처치, 보건교육과 보건실 운영을 가장 중요한 직무로 생각하고 있으며[18], 병원의 간호환경과 학교 내의 간호환경이 다르고 대상자가 호소하거나 발생하는 건강문제 또한 다르기 때문에 학교 환경에 맞는 건강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건교사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19,20].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지역에서 실시된 보수교육 현황분석을 보면 보수교육에 참여한 대다수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상 현장의 간호사이지만, 학교 등 병원 이외의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면허간호사의 수도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21]. 급속도로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적응하고 이에 맞는 질 높은 간호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들이 자신의 근무환경과 전문분야에 적합한 교육내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22]. 보수교육이 전문성 개발을 위한 평생교육체제가 될 수 있도록 장기적 차원에서 각 직무분야 간호사에게 적합한 단계별 보수교육체계의 개발과 적용이 요구된다[17]. 그러기 위해서는 직무분야별 직무수행의 어려움과 보수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 조사가 우선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직무별, 단계별 보수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국내의 간호사 보수교육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보수교육 실태와 요구도 조사[17,21,22]와 보수교육 정책을 위한 연구[6] 보수교육프로그램 역량분

석과 평가[23-25] 등으로 간호사 전체나 일개 지역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로 이루어졌으며,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그들의 보수교육에 대한 인식이나 요구도를 조사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보건교사는 자신의 직무와 경력단계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파악하여 적절한 보수교육을 선택하고,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그들의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건교사의 직무수행 어려움과 보수교육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를 주요변수로 하여, 보건교사의 보수교육 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보건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보건교사의 보수교육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하고, 직무수행 어려움, 보수교육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후 보수교육에 대한 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U광역시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162명에게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 수는 G*power 3.1.9 프로그램을 통해 Multiple regression에 필요한 지표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효과크기(f^2) .15(중간크기), 유의수준(α) .05, 검정력($1-\beta$) 80%, 예측요인 14개의 검정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 표본 수는 135명이었다. 회수된 설문지는 총 162부였으며 불충분한 응답 12명의 설문을 제외한 150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3. 연구 도구

1) 직무수행 어려움

직무수행 어려움은 보건교사 직무분석과 일반 초임 교사 직무수행 어려움에 대한 선행연구들을[26,27] Jang[28]이 재구성한 척도로 측정하였다. 측정문항은 총 40문항으로 건강관리(10문항), 보건교육(10문항), 보건실 운영(10문항), 학교적응(10문항)의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어렵지 않다’ 1점, ‘어렵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약간 어렵다’ 4점, ‘매우 어렵다’ 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수행의 어려움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Jang[28]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97$ 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 건강관리 .90, 보건교육 .95, 보건실 운영 .93, 학교적응 .90 이었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88$ 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 건강관리 .94, 보건교육 .95, 보건실 운영 .96, 학교적응 .93 이었다.

2) 보수교육에 대한 인식

보수교육에 대한 인식은 Jang 등[17]이 대한간호협회 10개 산하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개발한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문항은 15문항으로 면허신고제(7문항), 보수교육제도(8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문항은 ‘정답’은 1점, ‘오답’은 0점으로 처리하여 개인별 점수는 최저 점수 0점에서 최고점수 1점까지이고, 총 점수가 높을수록 보수교육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KR 20은 전체 도구에서 .82, 영역별로는 면허신고제 .71, 보수교육제도 .72였다. 본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는 KR 20=.67이었다.

3) 보수교육에 대한 만족도

보수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Jang 등[17]이 대한간호협회 10개 산하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개발한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문항은 11문항의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불만족’ 1점에서 ‘매우 만족’ 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보수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96$ 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2$ 이었다.

4) 보수교육에 대한 요구도

보수교육에 대한 요구도는 Jang 등[17]이 대한간호협회 10개 산하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개발한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문항은 11문항으로 개선방안 적절성(5문항), 운영 적절성(3문항), 이수 적절성(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매우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6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보수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alpha = .81$ 이었으며, 각 영역별로는 개선방안 적절성 .83, 운영 적절성 .61, 이수 적절성 .69 이었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alpha = .82$ 이었으며, 각 영역별로는 개선방안 적절성 .82, 운영 적절성 .67, 이수 적절성 .73 이었다.

4.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20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U광역시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보건교사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자료수집의 협조를 구한 후, 연구의 자발적 참여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은 후 설문지를 배부하고, 설문지는 배부 즉시 작성한 후 회수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직무수행 어려움, 보수교육에 대한 인식, 보수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보수교육에 대한 요구도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의 차이는 t-test,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직무수행 어려움, 보수교육에 대한 인식, 보수교육에 대한 만족도 및 보수교육에 대한 요구도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관계 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보

수교육에 대한 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U대학교의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승인번호 1044363-A-2020-001)을 받은 후 수행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었으며,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과 대상자의 비밀유지와 함께 연구 진행 중이라도 철회를 요청할 경우 중도철회가 가능함을 설명하고 안내하였다.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 중 개인식별정보들은 모두 코드화하여 익명 처리한 후 분석 진행하였다. 자발적으로 연구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들에게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모든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령은 20-29세 14명(9.3%), 30-39세 41명(27.3%), 40-49세 46명(30.7%), 50세 이상 49명(32.7%)이었다. 결혼상태 미혼 30명(20.0%), 기혼 116명(77.3%), 기타 4명(2.7%)이었으며, 최종학력은 전문학사 31명(20.7%), 학사 76명(50.7%), RN-BSN 24명(16.0%), 석사과정 수료 이상 19명(12.7%)이었다. 교직경력 1-3년 미만 47명(31.3%)으로 가장 많았으며, 5-10년 미만이 21명(14.0%)으로 가장 적었다. 임상경험은 있음이 16명(10.7%), 없음이 134명(89.3%)이었으며, 근무학교는 초등학교 71명(47.3%), 중학교 40명(26.7%), 고등학교 31명(20.7%), 기타 8명(5.3%)이었다. 근무학교 학생 수는 500명 이상이 76명(50.7%)으로 가장 많았으며, 300-400명 미만이 13명(8.7%)으로 가장 적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of Variables

(N = 15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Difficulty of job performance	Perception of continuing education	Satisfaction of continuing education	Needs for continuing education
			M±SD	M±SD	M±SD	M±SD
Age	20-29	14(9.3)	3.82±0.72	12.0±1.03	3.95±0.74	4.51±0.54
	30-39	41(27.3)	3.91±0.71	10.92±2.44	3.65±0.83	4.20±0.85
	40-49	46(30.7)	4.02±0.58	9.58±3.22	3.86±0.91	4.48±0.70
	≥50	49(32.7)	4.29±0.59	9.18±2.54	3.93±0.90	4.63±0.69
	F(p)		0.92(.429)	6.20(.001)	0.71(.429)	2.62(.053)
Marital status	Single	30(20.0)	3.85±0.69	10.83±2.42	3.66±0.87	4.26±0.97
	Married	116(77.3)	4.11±0.63	9.91±2.79	3.88±0.86	4.49±0.66
	Others	4(2.7)	4.07±1.02	8.00±4.24	3.86±1.25	5.11±0.60
	F(p)		1.91(.151)	2.44(.091)	0.72(.485)	2.78(.065)
Education level	Diploma	31(20.7)	3.75±0.81	9.64±3.16	3.62±0.86	4.40±0.68
	Bachelor	76(50.7)	4.15±0.58	10.21±2.89	3.85±0.94	4.46±0.81
	BSN	24(16.0)	4.01±0.65	10.50±2.12	3.88±0.74	4.32±0.57
	≥Master	19(12.7)	4.28±0.50	9.47±2.50	4.05±0.74	4.72±0.72
	F(p)		3.63(.014)	0.77(.510)	1.03(.381)	1.12(.342)
Years of experience	1- <3	47(31.3)	3.63±0.68	10.29±2.52	3.64±0.76	4.47±0.61
	3- <5	24(16.0)	4.01±0.60	11.50±1.58	3.76±0.98	4.27±0.99
	5- <10	21(14.0)	4.42±0.39	11.47±2.01	4.10±0.65	4.60±0.68
	10- <20	26(17.3)	4.14±0.52	9.19±3.03	3.98±1.05	4.47±0.73
	≥20	32(21.3)	4.43±0.51	8.34±3.06	3.86±0.88	4.47±0.75
	F(p)		11.96(<.001)	7.91(<.001)	1.33(.259)	0.57(.679)
Clinical career	Yes	16(10.7)	4.05±0.67	10.14±2.73	3.79±0.88	4.45±0.76
	No	134(89.3)	4.12±0.49	9.18±3.22	4.24±0.68	4.48±0.60
	t(p)		0.53(.602)	-1.30(.194)	1.97(.050)	0.15(.879)
School type	Elementary school	71(47.3)	4.06±0.67	9.69±2.68	3.79±0.95	4.53±0.63
	Middle school	40(26.7)	4.00±0.66	10.20±3.41	3.81±0.82	4.24±0.89
	High school	31(20.7)	4.27±0.52	10.83±2.00	3.97±0.78	4.61±0.72
	Others	8(5.3)	3.53±0.73	9.37±2.66	3.72±0.79	4.29±0.75
	F(p)		3.08(.029)	1.42(.239)	0.33(.800)	1.96(.117)
Number of students	<200	23(15.3)	3.53±0.64	10.08±2.53	3.45±0.87	4.37±0.60
	200- <300	14(9.3)	4.00±0.64	9.35±2.73	4.05±0.93	4.69±0.83
	300- <400	13(8.7)	4.22±0.68	8.92±3.92	3.79±0.90	4.32±0.78
	400- <500	24(16.0)	4.09±0.58	10.33±2.44	3.68±0.62	4.28±0.78
	≥500	76(50.7)	4.19±0.61	10.26±2.76	3.97±0.90	4.52±0.74
	F(p)		5.27(.001)	0.91(.457)	2.02(.095)	1.00(.405)

BSN=Bachelor's of Science in Nursing Degree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수행 어려움, 보수교육에 대한 인식, 보수교육에 대한 만족도 및 보수교육에 대한 요구도

대상자의 직무수행 어려움은 평균 4.06 ± 0.65 점, 보수교육에 대한 인식 10.04 ± 2.79 점, 보수교육에 대한 만족도 3.83 ± 0.87 점, 보수교육에 대한 요구도는 4.46 ± 0.74 점 이었다(Table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수행에 대한 어려움은 최종학력($F=3.63, p=.014$), 교직 경력($F=11.96, p<.001$), 근무학교($F=3.08, p=.029$), 근무학교 학생 수($F=5.27,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교육에 대한 인식은 연령($F=6.20, p=.001$)과 교직 경력($F=7.91, p<.001$)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보수교육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도에 있어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1).

3. 대상자의 직무수행 어려움, 보수교육에 대한 인식, 보수교육에 대한 만족도 및 보수교육에 대한 요구도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직무수행 어려움과 보수교육에 대한 만족도($r=.31, p<.001$), 보수교육에 대한 요구도($r=.18, p=.025$) 및 보수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보수교육에 대

한 요구도($r=.47, p<.001$)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보수교육에 대한 인식과 다른 변수들과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4. 대상자의 보수교육에 대한 요구도 영향요인

잔차의 독립성 검정을 위해 Durbin-Watson 값을 구한 결과 2.17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auto-correlation)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공차한계(tolerance)가 .47-.98로 0.1이상으로 나타났고,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도 1.00-1.11로 10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문제를 배제할 수 있었다. 각 대상자의 보수교육에 대한 요구도 영향요인을 검증한 결과 보수교육에 대한 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보수교육에 대한 만족도($\beta=.45, p<.001$)였으며, 이 요인의 설명력은 22.8%로 나타났다. 즉 보수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보수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IV. 논 의

보건교사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건강문제해결 및 개선에 대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의료법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Study Variables

(N = 150)

Variables	M \pm SD	Min~Max	Scale range
Difficulty of job performance	4.06 \pm 0.65	1.95~5.00	1~5
School health services in health clinic for students & staff	4.22 \pm 0.62	1.90~5.00	1~5
Performed health education in classroom	3.84 \pm 0.73	2.00~5.00	1~5
School health's administrate works & management	4.12 \pm 0.75	2.00~5.00	1~5
Levels of school adaptation	4.06 \pm 0.71	1.90~5.00	1~5
Perception of continuing education	10.04 \pm 2.79	0.0~15.0	1~15
Perception of continuing education system	4.06 \pm 0.65	0.00~8.00	1~8
Perception of licensure notification systems	5.51 \pm 1.95	0.00~7.00	1~7
Satisfaction of continuing education	3.83 \pm 0.87	1.00~5.00	1~5
Needs for continuing education	4.46 \pm 0.74	1.00~6.00	1~6
Appropriateness of completion	4.38 \pm 0.98	1.00~6.00	1~6
Sutability for operation	3.78 \pm 1.11	1.00~6.00	1~6
Appropriateness of improvement plan	4.90 \pm 0.83	1.00~6.00	1~6

Table 3. The Relationship between Difficulty of Job Performance, Perception of Continuing Education, Satisfaction of Continuing Education and Needs for Continuing Education (N = 150)

Variables	Difficulty of job performance	Perception of continuing education	Satisfaction of continuing education	Needs for continuing education
	r(p)	r(p)	r(p)	r(p)
Difficulty of job performance	1			
Perception of continuing education	.02(.775)	1		
Satisfaction with continuing education	.31(<.001)	.07(.397)	1	
Needs for continuing education	.18(.025)	.15(.064)	.47(<.001)	1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f Needs for Continuing Education (N = 150)

Variables	Needs for continuing education			
	B	(β)	t	p
Difficulty of job performance	.04	.03	0.46	.646
Perception of continuing education	.03	.01	1.64	.102
Satisfaction of continuing education	.38	.45	6.02	<.001
R2(adj) = .228, R ² = .243, F = 15.63, VIF = 1.00~1.11, p < .001				

에 근거하여 면허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본 연구는 보건교사들의 직무수행 어려움, 보수교육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를 조사하고 보수교육에 대한 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보건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신체문제 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문제들이 대두되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보건교사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실정에 보건교사들의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28]. 초임 보건교사들은 병원 임상 간호환경에 익숙하여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새롭게 부여 받은 직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의견[28,29]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20년 이상의 경력자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건 교사에게 요구되어지는 직무 수행이 단순한 신체적 건강문제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상담업무 부가, 과다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행정 전산시스템의 변화, 학생 뿐만아니라 학교 교직원들의 건강증진활동 관련 업무부과, 고교의 경우 입시와 관련된 학생 서류 작성 등으로 더욱 다양화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직무수행 어려움의 세부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Jang과 Lee[19]의 연구에서는 보건교사들이 배치 전 보건교육에 대한 충분한 교육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여 교수자로서의 보건교육 수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대변화를 비롯하여 전염병 등의 유행으로 인해 상황이 급변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할 보건교육의 우선순위나 내용도 변화됨으로 변화에 맞춘 보건교육에 대한 정보 등을 전달받을 수 있는 맞춤형 보수교육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학교에서의 보건교사는 학생 및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를 대상으

로 건강 증진서비스, 환경관리 및 보건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교인구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학교건강 증진사업의 핵심인력이 되어 가고 있다[8].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보건교사들이 선행연구 결과와 상이하게 보건교육이 아닌 건강관리 부분에 직무수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교구성원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 형태의 질병, 응급상황 등이 대두됨에 따라 보건교사들이 개별적인 건강관리 부분까지도 업무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한 보건교육에 대한 충분한 연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응급환자 대처방안 등을 비롯한 건강관리 부분을 모듈로 선정한 보수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보건교사들의 보수교육에 대한 인식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Jang 등[17]의 연구에서도 보건교사들이 경력이 쌓일수록 보수교육에 대해 무관심해지고, 보수교육제도에 대해서까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초임 교사일 때는 본인의 업무 해결을 위한 필요도에 의해 보수교육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업무와 상이하게 제공되어지고 있는 보수교육의 필요성을 잃어가고 시간의 효율성만을 위한 온라인 강좌 등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21]. 보건교사들의 직무수행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수교육의 변화가 필요한 실정이지만, 당사자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 보수교육의 이용실태도 온라인 교육 등의 단순하고 간결한 교육을 선호하고 있다[17,21,22].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수교육에 대한 인식도에 변화를 주고, 체계적으로 보수교육관리 시스템을 확충하여 보건교사의 보수교육의 참여도 및 만족도와 효과를 향상시킴으로써 사회에서 요구되어지는 직무수행의 어려움에 돌파구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보건교사는 직무수행 어려움을 느낄수록 보수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보수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수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높을수록 보수교육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Jang과 Lee[19]의 연구에서도 임상경험이 없는 보건교사들의 건강관리 직무수행 어려움에 대한 인식이 높고, 응급처치 관련 연수 또는 보수교육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학교현장의 경험부족이 직무수행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경험을 대체해 줄 수 있는 보수교육의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보수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아진 것은 그들의 요구도에 따른 교육이 이루어졌을 때 그들의 업무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보건교사에게 직무수행에 적합한 맞춤형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언제든지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직무수행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수교육에 대한 만족도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보수교육에 대한 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보수교육에 대한 만족도로 확인되었다. 보건교사들은 학교에 1인 배치되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스스로의 직무를 파악하고 배워나가면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부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3]. 보수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보건교사들의 여러 가지 직무수행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보수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다양한 보수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이라 여겨진다. 보건교사들은 임상현장과 달리 프리셉터 제도 등을 통해 자신의 업무에 대한 인식이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부담을 느끼며 직무수행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30]. 현재의 제도상으로는 대학시절의 교생실습 외 실제적인 보건교사의 업무에 대한 교육이 부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보건교사들이 보수교육이라는 제도를 본인들의 업무의 가이드로 활용한다면 업무 수행의 부담감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가능하면 보건교사들의 요구도가 있는 내용으로 맞춤형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이 보수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직

무수행의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보수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최대한 대상자의 상황에 맞추어, 경력에 따라, 직무의 요구도에 따라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된다면 보수교육의 만족도를 더욱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며, 학교 내 구성원을 비롯하여 사회에서 요구되어지는 보건교사의 전문적인 직무수행능력 향상에 도움 줄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결과 보건교사들의 직무수행 어려움과 보수교육의 만족도 및 보수교육에 대한 요구도는 유의하게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보수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요구도 간에도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수교육의 요구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보수교육 만족도로 22.8%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보건교사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보수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선행된다면 보수교육에 대한 요구도를 더 증대시켜 직무수행의 어려움 해결에도 도움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나아가 보건교사들의 직무 만족에도 도움을 주어 학교 내 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본 연구는 일개 지역의 보건교사들을 대상으로 시행하여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었을 수 있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보건교사들의 보수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보수교육의 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더 다양하게 모색해 볼 필요가 있으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보수교육의 만족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맞춤형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그 효과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1. Guilday P. School nursing practice today: implications for the Future. *Journal of School Nursing*. 2000;16(5):25-31.
2.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Enforcement Decree of The School Health Act [Internet]. Sejong : Author ;2018 [cited 2018 April 22] Available from <http://www.law.go.kr/>
3. Lee JH, Lee BS. Role Adaptation Process of elementary school health teachers: establishing their own positions.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2014;44(3): 305-316.
<https://doi.org/10.4040/jkan.2014.44.3.305>
4.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Guidelines for medical personnel license reporting and continuing education. [Internet]. Sejong : Author;2020[cited 2020 November 20] Available from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BOARD_ID=5900&BOARD_FLAG=04&CONT_SEQ=321352
5. Korean Nurses Association. Regulations for continuing education. [Internet]. Seoul : Author;2020[cited 2020 November 20] Available from <https://edu.kna.or.kr/main/htmlPage/doHtmlPageView.do>
6. Korean Nurses Association. A study on the development plan for nurses' maintenance education;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of the Republic of Korea. Seoul: Korean Nurses Association; 2012.
7. Kim JH. Continuing nursing education and health teacher professionalism.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2015;1(1):25-49.
8. Yang SO, Kwon MS, Jeong KH, Lee SH. A study on the awareness of Importance, performance level, and perceived competence level of school health promotion program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009;20(1):96-104.
9. Oh KO, Gang MH, Lee SH. Perceived occupational stress and depression of school nurse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012;26(1):60-71.
1. Guilday P. School nursing practice today: im-

- <https://doi.org/10.5932/JKPHN.2012.26.1.060>
10. Choi JB. Development of a competency evaluation scale for Korean health teacher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2015;1(1):105-130.
 11. Green R, Reffel J. Comparison of administrator's and school nurses' perception of the school nurse role. *The Journal of School Nursing*. 2009;25:62-71.
 12. Kim JH, So HS. Utilization of school health room and health problems among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and nursing performance of school health teachers in a city. *The Journal of The Korean Contents Association*. 2016;16(5):180-193.
 13. Elgie R, Sapien R, Fullerton L, Moore B. School nurse online emergency preparedness training: an analysis of knowledge, skills, and confidence. *The Journal of School Nursing*. 2010;26(5):368-376. <https://doi.org/10.1177/1059840510372090>
 14. Olympia RP, Wan E, Avner JR. The preparedness of schools to respond to emergencies in children: a national survey of school nurses. *Pediatrics*. 2005;116(6):738-745. <https://doi.org/10.1542/peds.2005-1474>
 15. Council on School Health. Medical emergencies occurring at school. *Pediatrics*. 2008;122(4):887-894. <https://doi.org/10.1542/peds.2008-2171>
 16. Evans W, Ficca M. The school nurse role in preparing for sudden cardiac arrest in the school setting. *The Journal of School Nursing*. 2012;28(6):418-422. <https://doi.org/10.1177/1059840512451743>
 17. Jang KS, Kim EA, Kim HY, Hwang SY. A survey on nurses' perception, satisfaction, and needs related to continuing educ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Administration*. 2019;25(2):125-135. <https://doi.org/10.1111/jkana.2019.25.2.125>
 18. Song YH. A study on support staffs in large class schools based on job analysis of school health teachers[dissertation]. Seoul: Hanyang University; 2011. p. 1-106.
 19. Jang SM, Lee GY. School novice health teachers' perception of job performance difficulties and job satisfac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Community Nursing*. 2021;32(4):566-577. <https://doi.org/10.12799/jkachn.2021.32.4.566>
 20. Endsley P. School nurse workload: A scoping review of acute care, community health, and mental health nursing workload literature. *The Journal of School Nursing*. 2017;33(1):43-52.
 21. Go JH, Han MR, Hur J. The analysis of raw data of completion of off-line continuing education in nursing in Seoul, 2008-2012.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4;12(6):527-538. <https://doi.org/10.14400/JDC.2014.12.6.527>
 22. Kim SJ, Ji HR, Kim NY, Lim YJ. Study on the current state and demand on the nursing continuing education in Gwangju.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7;17(7):575-596. <https://doi.org/10.22251/jlcci.2017.17.7.575>
 23. Go JH. Core competencies of nurses' continuing education programs[Master's thesis]. Seoul: Chungang University; 2014. p. 1-212.
 24. Jho MY. Nurses' perception of the importance of evaluating continuing education program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013;25(1):1-12. <https://doi.org/10.7475/kjan.2013.25.1.1>
 25. Jho MY, Kim MY. Development of the program evaluation measurement of continuing nursing education programs.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2013;43(2):236-246. <https://doi.org/10.4040/jkan.2013.43.2.236>
 26. Im MY, Lee SY. Job analysis of school health teachers in Korea based on DACUM job analysi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014;28(3):619-632. <https://doi.org/10.5932/JKPHN.2014.28.3.619>
 27. Cho KS. Job analysis of school health teachers working at high school using DACUM Technique. *Journal of Korean Society School Health*.

- 2016;29(3):167-179.
<https://doi.org/10.15434/kssh.2016.29.3.167>
28. Jang SM. A study of perceived job difficulties and job satisfaction in novice health teachers[*master's thesis*]. Seoul: Chungang University; 2018. p. 1-83.
29. McClanahan R. Weismuller PC. School nurses and care coordination for children with complex needs: an integrative review. *The Journal of School Health*. 2015;31(1).
<https://doi.org/10.1177/1059840514550484>
30. Oh JA, Kwon JO. Job identity and job stress on elementary school health teach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010;21(3), 341-350.